

Industry Indepth | 2026.03.16

방산 (비중확대)

가격 낮게, 성능 높게 언~밸런스



KUVIC Research Team 3

메일 kuvic_korea@naver.com

팀장 44기 Senior 김병찬

팀원 44기 Senior 김단비

팀원 44기 Senior 정다연

팀원

CONTENTS

Summary	3
Key Chart	4
신냉전의 상시화와 안보자강	6
러-우 전쟁의 향방과 유럽의 재무장 가속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Isolationism 2.0과 동맹구조의 재편	
중동 발 지정학적 리스크	
K-방산의 본질적 경쟁력	12
실전 레퍼런스와 압도적 공급역량	
단순 납품을 넘어 장기 수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MRO 생태계	
동유럽과 중동의 더블 모멘텀	17
동유럽: NATO 동부 전선의 'K-방산 표준화'와 생산 허브 전략	
중동: 실전 레퍼런스가 견인하는 자주 국방 수요	
미래기술 트렌드: AI와 무인화, 그리고 우주	25
유무인 협동전투체계(MUM-T)의 부상	
드론 전쟁을 통해 본 새로운 전쟁 경제학	
방공망의 진화: 하늘을 넘어 우주로	
결론	31
Company Analysis	33
LIG넥스원	

Summary

신냉전의 상시화와 글로벌 재무장: 방산 수요의 구조적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 4년이 지난 현재 대규모 전선 변화 없이 장기 소모전 형태로 고착되며, 단기간 내 종결 가능성이 낮은 **상시적 군사 대치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현재의 전선 고착을 평화 국면이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력 재정비 단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NATO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재무장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NATO는 기존 GDP 대비 2% 수준이던 방위비 기준을 **5% 수준까지 상향**하는 논의를 진행하며 국방비 확대를 구조화하고 있다. 이는 유럽 국방비가 단기적 증가가 아닌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장기 방산 수요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 정책**은 미국 중심 안보 질서를 약화시키며 동맹국들의 **자주 국방 및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촉진하고 있다.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이스라엘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에너지 인프라와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한 군사력 증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환경 변화는 방산 수요를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국가 안보 전략과 결합된 구조적 산업 성장 요인**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K-방산의 핵심 경쟁력: 납기, 생산능력, 실전 레퍼런스

K-방산의 경쟁력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한 공급 능력**에 있다. 냉전 이후 방산 생산 라인을 축소해온 서방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상시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상시 생산 기반**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수출 수요 증가 시 빠른 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적 기반이 되었다. 실제로 한국 무기체계는 서방 대비 **짧은 납기와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 방산 기업들은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 기술 이전, MRO 협력을 포함한 패키지 방산 협력 모델**을 제공하며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동유럽에서 축적된 **실전 레퍼런스**는 무기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며 추가 도입과 조기 납품 요청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방산 사업은 초도 납품 이후에도 **유지·보수·정비(MRO), 탄약 공급, 성능 개량** 등을 통해 수십 년간 매출이 지속되는 구조를 가지며, 현재의 수출 계약들은 **장기 수익 플랫폼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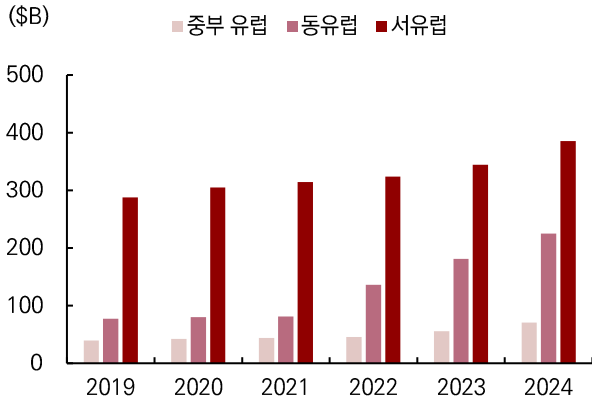
동유럽·중동 ‘더블 모멘텀’: K-방산 표준화와 장기 시장 형성

K-방산의 해외 확장은 현재 **동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동유럽에서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무기 도입과 현지 생산 협력이 이루어지며 ‘K-방산 표준화’가 형성되고 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체계의 단순 수입국을 넘어 **생산 및 MRO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슬로바키아·루마니아 등 인접 국가들로 한국 무기체계 도입이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유럽 내 생산 및 군수 네트워크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럽 장기 공급망 기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중동에서는 **실전 레퍼런스**가 시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UAE에서 운용된 **천공-II 방공 체계의 높은 요격 성과**는 한국 방공 시스템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으며, 이는 추가 주문과 신규 도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중동 국가들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방산 협력**을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한국 기업들이 주요 안보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동유럽의 재무장 수요와 중동의 방공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K-방산은 두 지역에서 구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Key Chart

주요 그림 1. 유럽 지역 국방비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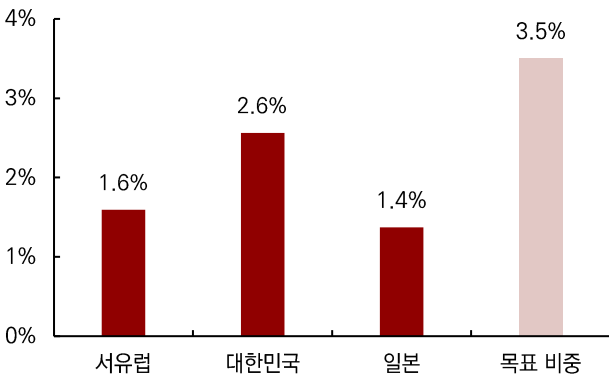
자료: SIPRI, KUVIC 리서치 3팀

주요 표 1. 주요 방산 수출국 무기체계 공급 능력

구분	대한민국	미국	유럽
평균 납기	1~2년	3~7년 이상	3~5년 이상
생산 체제	상시 대량 생산 유지	거대한 주문 적체	주문 적체 및 생산시설 복구
공급 강점	압도적 속도 및 적기 인도	기술 우위 및 NATO 호환성	고사양 정밀 무기 기술력
대표 사례	K2, K9	F-35, HIMARS	레오파르트 2, 라팔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주요 그림 2. 2024년 주요 지역 GDP 대비 국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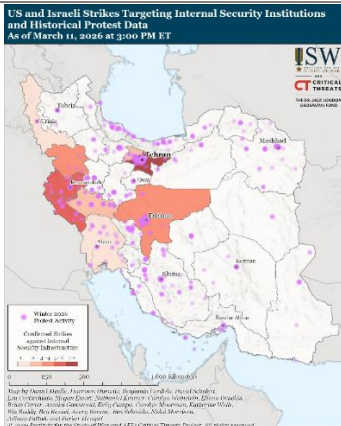
자료: SIPRI, KUVIC 리서치 3팀

주요 표 2. 미국 ITAR 규제 무기 vs 한국 ITAR-Free 무기

구분	미국산 무기	한국산 무기
제3국 수출	미국 국무부의 엄격한 승인 필수	수입국-한국 간 협의로 비교적 자유로움
운용 자율성	개조·개량 시 미국의 기술 승인 필요	독자적 MRO(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가능
기술 이전	핵심 기술 이전 극히 제한적	적극적인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TOT)
전략적 가치	안보 우산의 종속적 도구	수입국의 안보 주권 확보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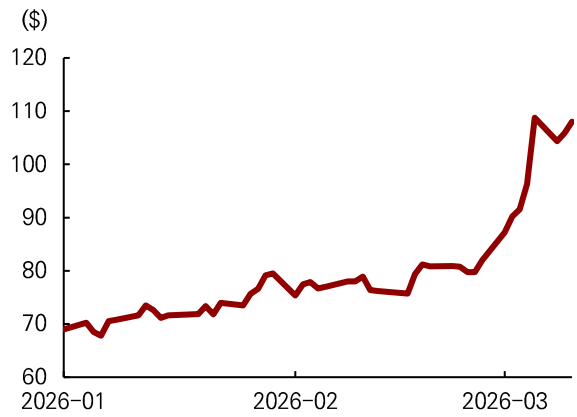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주요 그림 3. 미국 및 이스라엘의 이란 내부 보안 기관 타격 및 시위 발생 현황 (2026년 3월 11일 기준)



자료: ISW, KUVIC 리서치 3팀

주요 그림 4. 유가(USO) 추이 (2026년 1월 2일 ~ 2026년 3월 11일)



자료: KUVIC 리서치 3팀

주요 표 3. 공격 수단 vs 요격 수단의 경제성 및 효율성

구분	자폭 드론	패트리엇	천궁-II
발당 단가	3~5천만 원	50~70억 원	15~20억 원
주요 목표	레이더망 교란 및 인프라 타격	탄도 미사일 및 고고도 타격	중·저고도 순항 미사일/드론
특징	저가 대량 투입	'방어의 역설' 발생	방공망 유지의 현실적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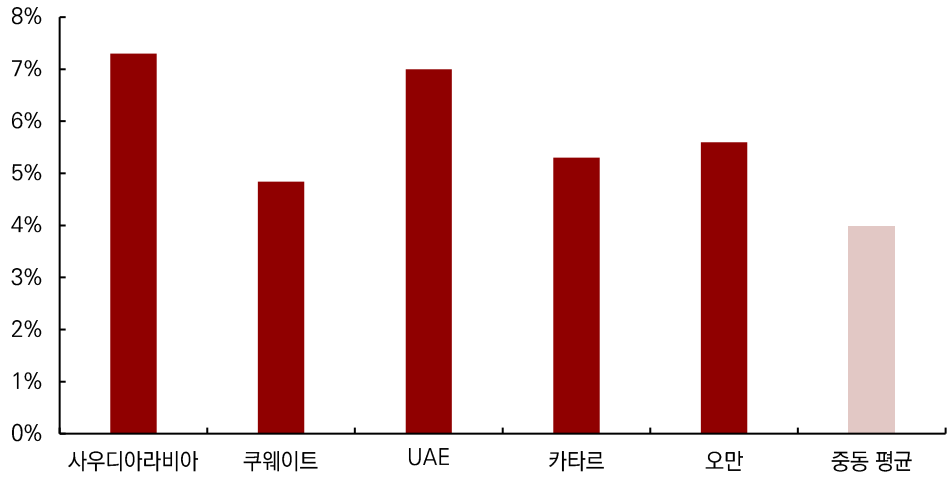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주요 표 4. 중동 다층방공망 구성

구분	고도	주요 운용 체계	특징
상층 방어	40~150km	THAAD, Arrow-3	탄도미사일 고고도 요격
중층 방어	20~40km	천궁-II, 패트리엇	교전 빈도 높은 핵심 구간
하층 방어	15km 이하	패트리엇, 크로탈	단거리 미사일 및 항공기 방어
저고도	10km 이하	C-UAS(대드론 체계), 비호복합	저가형 드론 및 장사정포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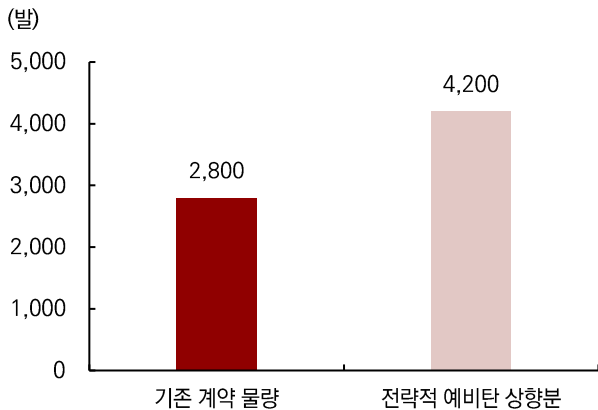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주요 그림 5. 2024년 GCC 주요국 GDP 대비 국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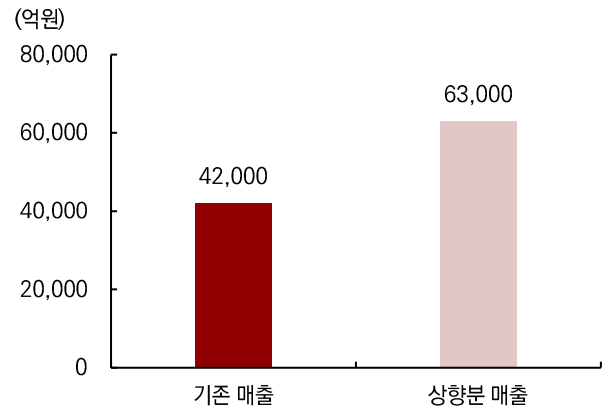
자료: SIPRI, KUVIC 리서치 3팀

주요 그림 9. 중동 3국(사우디, UAE, 이라크) 천궁-II 유도탄 수량추정



자료: KUVIC 리서치 3팀

주요 그림 10. 중동 3국(사우디, UAE, 이라크) 천궁-II 유도탄 매출추정



자료: KUVIC 리서치 3팀

신냉전의 상시화와 안보자강

러-우 전쟁의 향방과 유럽의 재무장 가속화

막바지인 러-우 전쟁과 그럼에도 유지되는 유럽의 긴장감

러-우 전쟁의 장기 고착화

2026년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 4년을 경과하며 양측 모두 대규모 영토 탈환이나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 어려운 **고착 국면에 완전히 진입**했다. 전선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정교한 참호선과 지뢰지대, 그리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갖춘 드론 및 전자전망에 의해 고착된 상태다. 이는 과거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전이나 한반도의 휴전선과 유사한 **저강도 소모전이 장기화되는 동결된 분쟁 단계**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전시 경제 체제 안착에 따른 NATO의 상시적 위협 인식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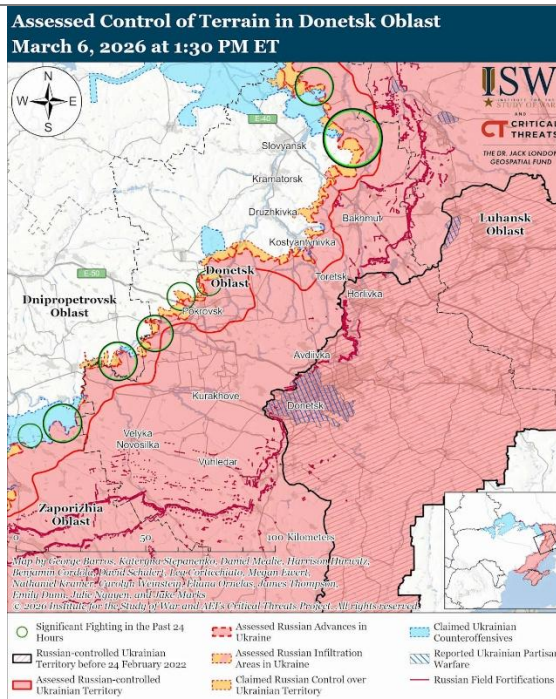
과거의 동결된 분쟁 사례들이 긴장 완화로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소강상태는 유럽 안보 지형의 심리적 임계점을 돌파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명확한 평화 협정이나 종결 없이 전선이 유지됨에 따라, 유럽 각국은 이를 전쟁의 종료가 아닌 **상시적 위협의 고착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러시아가 **전시 경제 체제를 안착**시키며 군수물자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할 때, NATO는 현재 상황을 러시아가 군사력을 재정비하여 폴란드나 발트 3국 등 차기 목표를 겨냥하기 위한 전략적 휴지기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 전역의 국방비 구조적 상향 및 방산 공급망의 재편 가속화

이러한 위기감은 **NATO 동부 전선을 거대한 전략적 요소**로 변모시키고 있다. 과거 안보의 외주화를 통해 국방 예산을 복지 재원으로 전용했던 서유럽 강대국들 역시, 이제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상태에서 러시아와 직접 대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공포에 직면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분쟁 고착화는 군비 축소가 아닌 **유럽 전역의 국방비 지출을 구조적으로 증액**시키고 방산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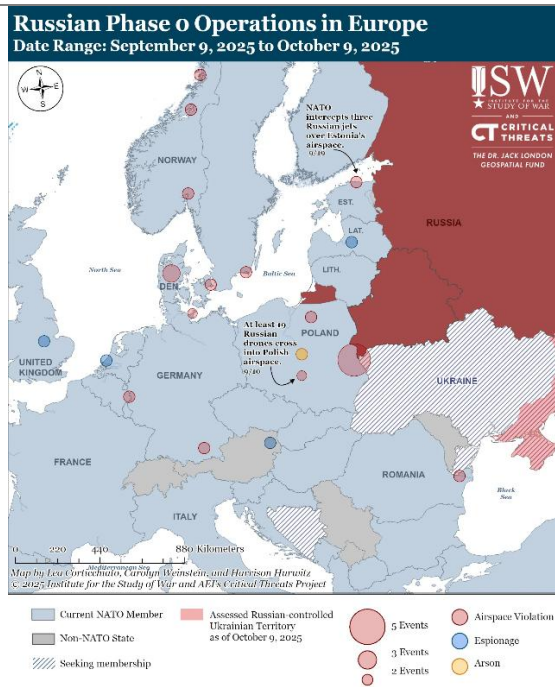
무장된 대치가 상시화된 2026년의 유럽에서 국방력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국가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며,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방산 발주 사이클**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매크로 배경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장 통제 현황 (2026년 3월 6일 기준)



자료: ISW, KUVIC 리서치 3팀

그림 2. 유럽 내 러시아의 0단계 작전 (기간: 2025년 9월 9일 ~ 10월 9일)



자료: ISW, KUVIC 리서치 3팀

양적 억제력 회복과 유럽의 구조적 재무장, 그리고 K-방산의 부상

재래식 화력 체계 및 MRO 공급망 중시

유럽 각국은 지난 2년간의 고강도 소모전을 통해 서방의 정밀 무기 체계가 직면한 수량적 한계를 확인했다. 첨단 유도무기만으로는 전선의 유지와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NATO 동부 전선 국가들을 중심으로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검증된 재래식 화력 체계의 대량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수백만 발 단위의 탄약 비축량 확대와 전시에 즉각 대응 가능한 유지보수(MRO) 공급망 구축이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는 질적 우위를 넘어선 양적 억제력의 회복을 의미하며, 대량의 화력을 지속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전쟁 역지력의 핵심 지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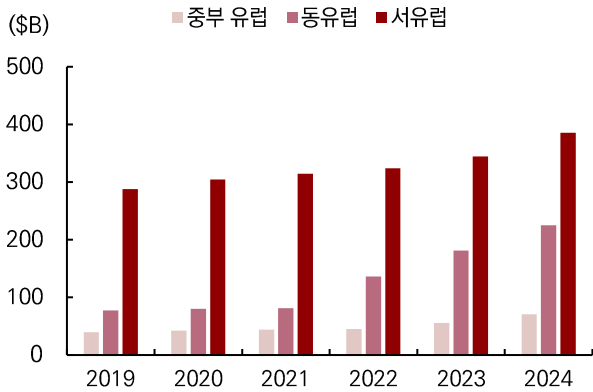
NATO의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 격상 및 유럽 국방 예산의 급팽창

이러한 화력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는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의 급격한 상향을 견인하고 있다.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NATO 동맹국들에 GDP 대비 5%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과거의 2%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2025년 6월 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GDP 대비 5% 방위비 지출 목표에 전격 합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3.5%를 핵심 방위력 강화에, 1.5%를 보안 및 인프라 등 기반 산업 투자에 배정하는 구조다. 특히 러시아와 직접 맞닿은 폴란드와 발트 3국, 루마니아 등 접경국들은 3.5%에서 최대 5%를 상회하는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하며 재무장을 주도하고 있다. 핵심 방위비 지출 기준이 기존 2%에서 3.5%로 격상됨에 따라, 유럽의 2026년 국방 예산은 2024년 대비 30% 가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방 방산 제조 역량의 공백을 메우는 한국산 무기 체계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서방 제조 기지의 리드타임 병목 현상은 한국산 무기 체계의 위상을 필수재로 격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서방 방산 강국들의 생산 라인은 여전히 자국군 현대화 물량과 노후 장비 교체 수요를 소화하기에도 부족한 상태다. 숙련공 부족과 에너지 비용 상승, 부품 공급망 혼란이 겹치면서 주요 기종의 리드타임이 7~10년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서방 제조 역량의 공백은 빠르게 인도가 가능한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를 단순한 보완재에서 안보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는 유일한 필수재로 변화시켰다. 약속된 납기를 준수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한국의 제조 플랫폼은 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단순 구매를 넘어 현지 생산 및 기술 협력으로 이어지는 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림 3. 유럽 지역 국방비 지출 추이



자료: SIPRI, KUVIC 리서치 3팀

표 1. 주요 방산 수출국 무기체계 공급 능력

구분	대한민국	미국	유럽
평균 납기	1~2년	3~7년 이상	3~5년 이상
생산 체제	상시 대량 생산 유지	거대한 주문 적체	주문 적체 및 생산시설 복구
공급 강점	압도적 속도 및 적기 인도	기술 우위 및 NATO 호환성	고사양 정밀 무기 기술력
대표 사례	K2, K9	F-35, HIMARS	레오파르트 2, 라팔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Isolationism 2.0과 동맹 구조의 재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관과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관과 '미국 없는 안보 시대'의 도래

2025년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극단화하며, 기존의 가치 중심 동맹에서 탈피한 **철저한 거래적 동맹관**을 바탕으로 글로벌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안보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어 역량과 재정적 책임**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 **동맹의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거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전 세계 우방국들이 미국 없는 안보 시대를 대비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고립주의 확산에 따른 동맹국들의 독자적 억제력 확보 및 안보 자강 시대

이러한 미국발 안보 지형의 변화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수요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 과거 미국의 강력한 안보 우산에 의존하며 군비를 축소해왔던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자국의 생존을 위해 **독자적인 억제력과 타격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적 성향은 동맹국들에게 안보 자강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던졌으며, 이는 각국이 국방 예산을 구조적으로 증액하고 **무기 체계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자산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안보 체계는 무너지고 있으며, 각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화력과 제조 역량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거는 새로운 안보 경쟁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발 안보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방산 수요의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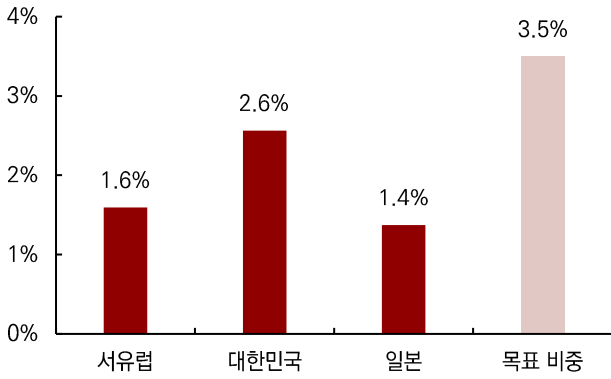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안보 의존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방어 역량과 재정적 책임을 갖출 것을 강요하는 직접적인 동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분담금 증액을 외교적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며 **방위 공약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미군 주둔국들은 미국의 전략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호주 등 아태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잠수함, 장갑차 등 해상 및 지상 전력의 자강 노력이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유도무기와 감시 정찰 자산 등 하이엔드 전력의 수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 우산이 조건부로 변화함에 따라 각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독자적 타격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ITAR 규제 리스크와 한국산 ITAR-Free 무기 체계의 전략적 가치

독자적 안보 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미국산 무기 체계가 가진 **ITAR(국제무기거래규정) 리스크**는 구매국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중대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는 성능 면에서 압도적이거나, 도입 후 운용 및 제3국 수출 과정에서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인 ITAR 규제로 인해 **수입국의 주권적 결정권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이익을 위해 이러한 규제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강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급의 자율성과 기술 이전이 보장되는 ITAR-Free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한국은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미국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무기 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부상했다.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정치적 외압과 관계없이 무기를 상시 운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리트로 작용하며, 한국 방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

그림 4. 2024년 주요 지역 GDP 대비 국방비



자료: SIPRI, KUVIC 리서치 3팀

표 2. 미국 ITAR 규제 무기 vs 한국 ITAR-Free 무기

구분	미국산 무기	한국산 무기
제3국 수출	미국 국무부의 엄격한 승인 필수	수입국-한국 간 협의로 비교적 자유로움
운용 자율성	개조·개량 시 미국의 기술 승인 필요	독자적 MRO(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가능
기술 이전	핵심 기술 이전 극히 제한적	적극적인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TOT)
전략적 가치	안보 우산의 종속적 도구	수입국의 안보 주권 확보 수단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중동 발 지정학적 리스크

2026년 중동 전면전 발발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안보 붕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전면전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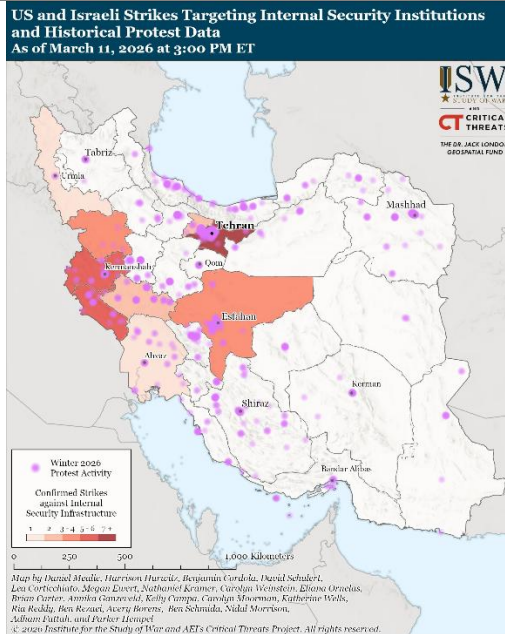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주요 핵 시설 및 군사 기지에 대한 대규모 정밀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은 **역대 최악의 전면전 국면에 진입**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부 상당수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란은 즉각적인 보복을 선언하고 미군 기지가 주둔 중인 주변 아랍 국가들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란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를 선언했으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물리적 단절을 의미하는 안보적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 세력(Proxy)을 동원한 입체적 공세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마비

이 과정에서 이란은 자국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광범위한 **대리 세력(Proxy)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입체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수만 발의 로켓을 발사하며 지상군 전력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와 아덴만을 통과하는 상선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여 **글로벌 물류를 마비**시키고 있다. 또한 이라크와 시리아 내 시아파 민병대들은 자국 내 미군 기지에 대한 파상공세를 지속하며 미군의 개입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

이러한 무장 세력들의 공격은 단순히 군사적 타격에 그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정유 시설과 카타르의 LNG 생산 플랜트 등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2026년 초 발생한 **드론 스웜(Drone Swarm) 공격**으로 인해 일부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국제 유가의 폭등과 함께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방위력 구축이 국가 생존의 최우선 과제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중동 분쟁은 국지적 충돌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시적 위협으로 고착화되었다.

그림 5. 미국 및 이스라엘의 이란 내부 보안 기관 타격 및 시위 발생 현황 (2026년 3월 1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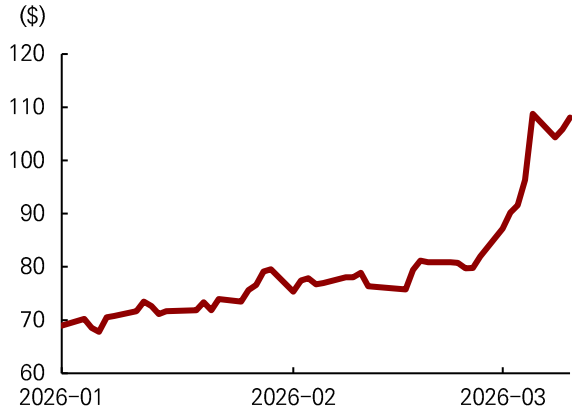
자료: ISW, KUVIC 리서치 3팀

표 3. 이란의 대리 세력

구분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인민동원군
활동 지역	레바논	예멘	이라크
병력 규모	4~6만 명	10~12만 명	약 23만 명
종파	시아파	시아파	시아파
성향	친 이란, 반 이스라엘	친 이란, 반 미국/이스라엘	친 이란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그림 6. 유가(USO) 추이 (2026년 1월 2일 ~ 2026년 3월 11일)



자료: KUVIC 리서치 3팀

비대칭 위협의 고도화와 걸프 국가들의 다층 방공망 요새화 전략

비대칭 전술에 따른 '방어의 역설' 및 GCC 국가들의 다층 방공망 구축 본격화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이 구사하는 저비용·고효율 비대칭 전술은 기존의 방어 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노출시켰다. 수천만 원에 불과한 자폭 드론 수백 대를 동시에 투입하는 드론 스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발당 수십억 원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모하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한 방어의 역설**을 야기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협력 회의(GCC) 주요국들은 국방 예산을 상향 편성하고, 비대칭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다층 방공망(Multi-layered Defense)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궁-II의 실전 성능 입증에 따른 신뢰도 상승

이들 국가는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방어하는 저고도 체계부터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중·고고도 체계까지 유기적으로 통합된 방위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26년 2월 전쟁 과정에서 실전에 배치된 **한국산 천궁-II(M-SAM)가 96%에 달하는 경이적인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성능을 입증함에 따라, 중동 내 한국 유도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정점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와 UAE는 기존 계약 물량의 조기 납품을 요청하는 동시에 **고고도 요격 체계인 L-SAM**에 대한 대규모 신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동 국가들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자국 내 생산 기지 구축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ITAR 강화와 서방 방산 기업들의 기술 이전 기피 현상은 중동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안보 파트너로 낙점**하게 만들었다. 현지 공동 생산과 운영 MRO 역량 이전에 개방적인 한국의 전략은 중동 국가들의 자주국방 욕구와 결합하여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강력한 방산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일회성 수출을 넘어선 구조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모멘텀이 될 것이다.

표 4. 공격 수단 vs 요격 수단의 경제성 및 효율성

구분	자폭 드론	패트리어트	천궁-II
발당 단가	3~5천만 원	50~70억 원	15~20억 원
주요 목표	레이더망 교란 및 인프라 타격	탄도 미사일 및 고고도 타격	중·저고도 순항 미사일/드론
특징	저가 대량 투입	'방어의 역설' 발생	방공망 유지의 현실적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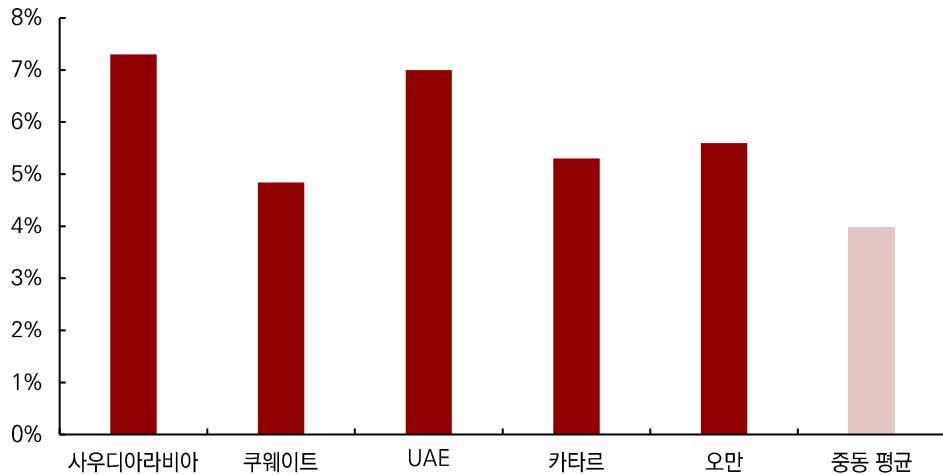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표 5. 중동 다층방공망 구성

구분	고도	주요 운용 체계	특징
상층 방어	40~150km	THAAD, Arrow-3	탄도미사일 고고도 요격
중층 방어	20~40km	천궁-II, 패트리어트	교전 빈도 높은 핵심 구간
하층 방어	15km 이하	패트리어트, 크로탈	단거리 미사일 및 항공기 방어
저고도	10km 이하	C-UAS(대드론 체계), 비호복합	저가형 드론 및 장사정포 대응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그림 7. 2024년 GCC 주요국 GDP 대비 국방비



자료: SIPRI, KUVIC 리서치 3팀

K-방산의 본질적 경쟁력

실전 레퍼런스와 압도적 공급 역량

K-방산 신뢰성의 정의: 이행 능력의 종합

K-방산의 신뢰성은 단순 고장율이나 카탈로그 성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객사(수입국) 입장에서 “**전력화 시계(Time-to-Operational Capability)**”를 단축시키고, 위기·전시 조건에서 실제로 작동하며, **장기 유지·보수·정비(MRO)와 현지화(기술이전/공동생산)까지 계약대로 이행하는 능력의 합**을 뜻한다.

한국 방산이 위와 같은 프레임에서 강점을 가지는 배경에는, 방산 빅4(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가 ‘대량 생산 기반+정부간(G2G)·금융 조합+현지 맞춤화’를 제품과 함께 제공해 왔다는 점이 있다. 이는 단순 수출 증가를 넘어서, **고객국이 요구하는 납기, 가동률, 자주정비 역량까지 포함해 ‘계약 이행’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구조**이다.

가성비와 납기 경쟁력

유럽 수요의 본질은 최첨단 기술 도입보다 대량을 단기간에 전력화하는 데 있다. 폴란드가 러-우 전쟁 직후 한국과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288대, FA-50 48대 기본계약에 합의했고, 후속 실행계약으로 K2 360대, K9 364문, 천무 288대, FA-50 48대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조달의 규모 자체가 전력화 전략의 일부였음을 시사한다.

‘가성비’는 보통 단가 비교로 축소되지만, 방산 분야에선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력화 속도, 작전 가동률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한국 방산 수출 경쟁력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량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국내 생산 수요(북한 위협에 따른 생산 기반)을 기반으로 한다.

유럽의 요구는 지금 당장 투입 가능한 대량의 전력

이 경쟁력은 경쟁 체계의 공급 제약과 대비될 때 더 선명해진다. Lockheed Martin의 하이마스(HIMARS)는 이미 전 세계 주문이 포화 상태여서 신규 수요를 받기 어려운 반면, 천무는 즉시 증산 가능한 여유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생산능력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요 폭증 구간에서는 서방 최상위 공급자도 생산능력 증설에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대체 공급자가 시장을 연다는 점이다. 한국은 그 구간에서 납기 신뢰를 반복적으로 증명하며 레퍼런스를 쌓았다.

표 6. M142 HIMARS와 K239 천무의 생산 및 공급 현황

구분	M142 HIMARS (Lockheed Martin)	K239 천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간 생산능력	약 96대	약 100대+
평균 납기	36 ~ 60개월	18 ~ 24개월
주문 상태	2030년까지 포화	126문 조기 인도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실전에서 입증된 기술력

K-방산의 경쟁력이 단순한 ‘성능 시험 통과’와 구별되는 핵심 지점은, 실제 위협 환경에서 체계를 운용한 결과가 추가 도입·조기 납품·현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있다**. 현재 K-방산 주요 체계들은 중동, 동유럽, 동남아 세 전선에서 동시에 실전 레퍼런스를 축적하고 있다.

높은 요격을 뒤에 따라오는 탄약 재주문으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 구조

2026년 2월 말 개시된 이란-이스라엘 분쟁과 이란의 걸프 국가 보복 공격은, 아랍에미리트(UAE) 방공망을 스트레스 테스트 환경으로 전환시켰다. UAE 국방부는 이란발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탐지·요격 결과를 공개해왔으며, 이는 단발성 위협이 아닌 대규모 포화 공격 환경이 실제로 형성되었음을 방증한다. 이 교전 환경 속에서 천궁-II(M-SAM II)는 탄도미사일·드론 방어 과정에서 96%의 명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해당 수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발언 및 작전 데이터 취합을 근거로 국내 복수 매체가 보도한 것이며, UAE 당국이 단일 체계 기준으로 공식 공표한 통계는 아니다. 복수 요격탄 발사(Shot Doctrine) 조건을 전제한 '할당 표적 대비 성공률' 개념으로 해석되나, 시장에서는 이를 고신뢰 전투 레퍼런스로 수용하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요격 성공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후속 수요의 연쇄다.** UAE는 잔여 포대의 조기 납품 요청과 함께 추가 요격미사일 주문을 한 것으로 보도된다. 천궁-II 1개 포대는 다기능 레이더·교전통제소·발사대 4기로 구성되며, 발사대 1기당 8발을 탑재해 포대 기준 32발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 유도탄 단가를 발당 약 110만 달러(약 15억)로 추정하면, **포대 1회 발사 소모분 보충만으로도 수천만 달러 규모의 탄약 수요가 즉각 발생하는 구조다.** **교전이나 훈련 상황이 발생할수록 탄약·부품·정비 수요가 반복 창출되며,** 이것이 방산 수출을 일회성 계약이 아닌 장기 수익 플랫폼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같은 실전 상황에서 K-방산은 막았고, 중국산은 실패했다

천궁-II의 요격 성공과 동시에 진행된 또 하나의 사건이 방공 시장의 구도를 바꾸고 있다. 이란의 방공망이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이란은 기존 러시아제 방공망 외에 중국의 4세대 이동형 레이더 YLC-8B와 신형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HQ-9B를 도입해 수도 테헤란 등 핵심 거점에 배치했다. 중국은 YLC-8B가 미국 F-22·F-35 스텔스 전투기를 25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고, HQ-9B는 전자전 환경에서도 스텔스기를 요격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실전 결과는 달랐다. 이스라엘이 200여 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동안, **중국산 방공망은 단 한 대의 공격기도 격추하지 못했다.** 중국산 YLC-8B 레이더는 공격 전투기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이란 서부·중부 핵심 방공망의 80%가 파괴됐다.**

해당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중국 무기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산 방공망의 연이은 실패는 중국 무기 수출 시장에 치명적 타격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그동안 저렴한 가격에 서방 기술에 맞먹는 성능을 내세우며 중동·아프리카·남미 시장을 공략해왔으나, 두 차례의 실전 실패로 **중국산 무기의 카탈로그 스펙과 실전 성능 사이의 간극이 명확히 드러났다.** 중요한 점은 이 공백이 구조적 공백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산 방공 체계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던 국가들이 대체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러시아제 체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출 여력을 잃었고, 미국 패트리엇은 가격·납기·정치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 **이 구도에서 실전 요격률이 검증된 천궁-II는 가격 대비 성능과 납기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이번 이란 사태가 마무리되면 중동 지역의 신규 수요와 기존 도입국들의 재고 확보 차원 추가 발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천궁-II가 방어에 성공한 것과 HQ-9B가 공격자 측에서 무력화된 것이 동시에 일어난 이 장면은, 글로벌 방공 시장에서 K-방산이 차지하는 위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표 7. 천궁-II(한국)와 HQ-9B(중국)의 중동 실전 운용 성과

구분	천궁-II (UAE)	HQ-9B (이란)
실전 환경	이란발 탄도미사일·드론 포화 공격	마·이스라엘 스텔스기·순항미사일 공습
결과	96% 요격률	핵심 방공망 80% 파괴, 격추 실적 X
후속 효과	UAE 조기 납품 요청·추가 주문	이란 내 중국산 방공망 전량 폐기
시장 파급	중동 신규 수요 창출	중국 방공 수출 시장 공백 발생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유럽에서의 실전성은 다른 경로로 축적된다. **폴란드산 크라브(Krab) 자주포는 K9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된 혼합 체계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전되었다.** 완제품 K9의 직접 전장 투입은 아니지만, **고강도 소모전 환경에서 한국산 차체·기동·내구 성능이 간접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플랫폼 신뢰성 데이터로 해석된다.** 폴란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 장비를 타국에 직접 시연하는 훈련까지 기획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폴란드-한국 국방장관 회담 이후, 한국 장비를 활용한 합동훈련 'Autumn

Fire'를 통해 최근 도입 장비의 효율성을 시험하는 계획이 논의되었다. 운용국이 자국 도입 장비를 제3국에 자신 있게 시연하겠다는 의지는, 체계 신뢰도가 운전자 레벨에서 이미 검증되었음을 시사한다.

공급망 안정성과 온타임 딜리버리

K-방산의 온타임 딜리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특정 기업의 역량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작동하는 세 가지 구조적 조건에 있다.

휴전 국가의 방산 생태계가 유럽 재무장의 해답이 되었다

첫째, 생산 라인이 평시에도 살아있다. 냉전 종식 이후 방산을 축소해온 서방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상시적인 북한 위협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유지해왔다. 이는 결정적인 구조적 차이를 만든다. 수출 계약이 쏟아질 때 새로운 라인을 건설하고 인력을 재교육할 필요 없이, 이미 가동 중인 설비를 증산 모드로 전환하면 된다. 이 구조의 실력은 숫자로 검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개의 생산 라인을 풀가동해 연간 100문 이상의 K9을 생산하고 있으며, 폴란드 군사전문지는 현지 취재 후 "전 세계 어떤 공장도 이 정도 급의 장비를 이렇게 많이 생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란드가 연간 34문을 생산하는 크라브 자주포 공장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압도적이다.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의 자주포·전차 평균 납기가 36~60개월인 반면, 한국산 동급 체계는 18~24개월 내 인도가 가능하다.** 전쟁 장기화와 지역 분쟁 확산으로 각국이 전력 공백 보강에 속도를 내는 환경에서, 이 시간 격차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다. **안보 공백의 길이를 결정하는 전략 변수다.** 2022년 폴란드와의 계약 직후, 현대로템은 정식 계약 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K2 폴란드 육군 물량 1호차를 언론에 공개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같은 해 10월 K9A1을 공개하며 압도적인 생산력을 과시했다. **이 속도는 내수분 전용(轉用)을 포함한 결과였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자체가 생산 생태계의 두께를 증명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6월 기준 천무 126문을 조기 인도 완료하며 폴란드 군 당국의 두터운 신뢰를 확보했고, 이것이 천무 3차 실행계약(5.6조 원) 체결로 직결되었다.

둘째, 모듈 설계가 통합 비용을 낮춘다. 온타임 딜리버리의 두 번째 조건은 구성품의 모듈화와 현지 통합 용이성이다. 천무의 폴란드형인 호마르-K(Homar-K)는 한국산 발사 모듈을 폴란드산 엘츠(Jelcz) 차대에 통합하고, 폴란드식 토파즈(Topaz) 사격통제체계를 결합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이 방식은 고객국 입장에서 세 가지 이점을 동시에 제공한다. **자국 산업이 조립·통합 공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핵심 발사 모듈의 공급망 리스크는 한국이 관리하며, 사격통제 등 소프트웨어 계층은 자국 표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무기 체계를 들여오되 산업적 주권을 일부 확보하는 구조다. **K2 전차에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엔진, SNT다이내믹스의 자동변속기, 한화시스템의 사격통제장비가 탑재돼 있어, 단일 기업이 아닌 방산 생태계 전체가 수출 파급효과를 누리는 구조다.** 부품 공급망이 국내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외부 지정학 변수에 대한 통제력이 높고, 팬데믹과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도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 K9 자주포가 과거 독일산 엔진 탑재로 수출 제약을 받았던 경험을 교훈 삼아, 국산 엔진 적용으로 수출 가능 국가를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의 전략적 선택이다.

셋째, 서방 표준과의 호환성이 진입장벽을 낮춘다. 세 번째 조건은 NATO 표준과의 운용 호환성이다. **한국 방산은 NATO 표준과 호환돼 주요 동맹국 시장에서 구조적 진입장벽이 낮다.** 폴란드 정부가 K2·K9·천무·FA-50을 묶어 대규모 현대화를 설명하면서 단순 구매가 아닌 훈련·물류·기술지원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계약임을 강조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된다. 장비가 NATO식 운용체계(통신·교리·지원차량·탄약 체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통합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설계된 것이다.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는 NATO 본부에서 "한국 파트너들은 굉장한 최신 무기를 불과 몇 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다"고 극찬했으며, 폴란드 정부는 "한국은 평화를 위해 70년간 전쟁을 준비한 국가이고, 전쟁 위협 아래 개발한 무기는 최고 품질"이라고 평가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납기·가격·성능·통합성을 모두 충족한 공급자를 찾지 못했던 국가가 K-방산에서 유일한 해답을 발견했다는 실질적 선언이다.**

표 8. Homar-K 현지화 전략: 한국의 핵심 기술과 폴란드 현지 체계의 통합 구조

Hormar-K (288문 도입 예정)		
핵심 기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급	차대 - Jelcz 공급	소프트웨어 - WB Electronics 공급
발사 모듈 (K239 천무)	Jelcz 8 x 8	사격통제체계 Topaz
다연장로켓 발사 체계	폴란드산 고기동 차대	폴란드식 C2 통합 체계
CGR-080, CTM-290 유도탄	현지 주행·생존성 설계	NATO 통신 표준 호환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단순 납품을 넘어 장기 수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MRO 생태계

MRO와 수명주기 파트너십

MRO와 파트너십으로 지속적인 매출 발생

납품이 끝나는 순간, MRO 사업이 시작된다. 방산 수출의 경제적 가치를 초도 계약 규모로만 평가하는 것은 방산의 일각만 보는 것이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비용은 전통적으로 총 생애주기 비용의 약 70%를 차지한다. 초도 납품 계약은 전체 사업가치의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는 부품 공급, 오버홀, 교육훈련, 성능개량, 탄약 보충에서 발생한다. 이 구조가 K-방산에 갖는 함의는 명확하다. 지금 체결되는 수출 계약들은 단년도 납품 매출이 아니라, 30~40년짜리 수명주기 매출 파이프가 열리는 사건이다. 초기 계약 규모보다 운용 안정성, 정비 체계, 부품 공급 능력이 무기 체계의 실제 가치와 추가 수익을 좌우하는 구조로, MRO와 현지 생산·조립 체계가 결합될 경우 장기 매출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이어진다. 현재 K-방산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이 수익 구조가 본격화되는 변곡점이다. 이미 여러 국가와 맺은 장기 MRO 계약과 후속지원 체계는 락인(Lock-in) 효과를 가져오므로, 한 번 진출한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1단계: 단발 정비 계약

MRO가 독립된 수익 사업으로 구체화된 사례는 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KAI는 이라크에 수출한 T-50IQ에 대해 3년간 3.6억 달러 규모의 수리·정비·교육 계약을 수주했다. 발사대를 넘겨준 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용국이 가동률 유지를 위해 정비·부품·교육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구조가 성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초도 납품 대비 후속 지원 규모를 단순 비교해보면, MRO가 어느 시점부터 초도 계약을 능가하는 누적 매출원이 된다는 논리가 숫자로 뒷받침된다.

2단계: 현지 파트너와 함께하는 30~40년 지원 생태계

MRO의 진화 방향은 단발 정비 계약에서 현지 파트너와 함께 구축하는 수명주기 지원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다. KAI는 2024년 6월 폴란드 민스크 공군 기지에서 현지 항공정비 전문업체 WZL-2와 FA-50 운영에 필요한 후속 지원 협업 합의를 체결하고, 폴란드 공군이 FA-50을 총 수명주기(30~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급·정비·기술지원 등 후속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비 용역 계약 하나가 아니라, 30~40년짜리 운용 생태계 전체를 현지 파트너와 함께 짜는 구조다. 계약서에 찍힌 것은 합의서 한 장이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매출 파이프는 수십 년에 걸친 부품·소모품·교육·성능개량 수요 전체다.

KAI의 구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FA-50 MRO 센터와 국제 비행 훈련 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며, 폴란드 기지 사무소를 단순한 고객 지원 거점이 아닌 유럽 전역의 종합 후속 운용 지원 센터로 키운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MRO 허브는 폴란드 한 나라의 FA-50만이 아니라, 향후 유럽에서 FA-50을 도입하는 모든 국가의 수요를 흡수하는 거점이 된다. 운용국이 늘어날수록 허브의 경제적 가치는 비선형적으로 커진다.

필리핀은 이 선순환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성숙한 사례다. 필리핀은 2014년 첫 FA-50 도입 이후 마라위 전투에서 실전 검증을 완료했으며, 이후 PBL(성과기반 군수지원) 계약까지 체결하며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현재 클라크 공군기지 MRO 센터 설립이 협의되고 있으며, 필리핀은 FA-50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전 운용 → MRO 계약 → 추가 기종 도입 검토로 이어지는 수명주기 파트너십의 교과서적 진행이다. 초도 납품이 다음 수출의 발판이 되는 구조다.

3단계: 탄약 공급

훈련, 전쟁 상황 발생 시 소모된 탄약을 교체하고 비축분을 구비해야 한다

지상 무기 체계에서 MRO의 핵심 구성요소는 탄약이다. 천무 체계에서 유도무기 특성상 탄약체계에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발사대는 한 번 구매하면 수십 년을 쓰지만, 탄약은 훈련할 때마다 소모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천무 유도탄은 전력화 10년이 경과하면 수명연장사업을 통해 성능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총괄 관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요 부품 정비를 담당하는 후속지원 체계가 구동된다. 즉 탄약은 초도 납품 이후에도 '훈련 소모 → 재고 보충 → 수명 만료 교체'의 반복 사이클을 통해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 구조를 내장하고 있다.

폴란드에 도입 예정인 천무 발사대 288대를 기준으로, 발사대 1세트당 적재량 36발과 추정 단가(5000만 원)를 적용해도 초기 탄약 매출만 52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NATO 주요국이 목표로 하는 재고 비축 기준을 적용하면 잠재 시장은 5조 원 이상으로 확장된다. 또한 평시 훈련에 따른 자연 소모에 더해 10년마다 도래하는 수명 만료에 따른 대규모 교체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탄약 수요를 현지에서 직접 충족시키는 구조가 HWB 합작법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WB 일렉트로닉스가 공동 설립한 HWB는 폴란드 현지 전용 공장에서 CGR-080을 생산해 납품하는 구조로, 폴란드가 호마르-K 전력 운용과 탄약 조달을 자국 체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됐다. 에스토니아가 천무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유럽 내 수요 기반이 넓어지는 가운데, 폴란드의 합작 생산 체계는 CGR-080 공급을 중심으로 역내 탄약 조달 및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HWB 합작법인의 핵심은 단순한 현지 생산 계약이 아니다. 발사대를 납품한 뒤에도 수십 년간 반복 발생하는 탄약 수요를 공급망 안으로 편입시키는 탄약 MRO 거점의 구축이다. 현지 생산 체계 구축은 락인 효과를 강화하며, 2030년부터 납품되는 유도탄은 이후 MRO 및 신규 발주로 이어지며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주요 무기체계별 MRO 계약 현황

체계	MRO/수명주기 계약 사례	규모 및 특징
T-50IQ (이라크)	1단계: 단발 정비 계약	3년 3.6억 달러
FA-50 (폴란드)	2단계: WZL-2 협업 합의서	30~40년 수명주기 지원
FA-50 (필리핀)	2단계: PBL 장기 파트너십	장기 파트너십, MRO 센터 추진
천무 유도탄 (폴란드)	3단계: 탄약 MRO 현지화	5.6조 원 3차 계약, 2030년 생산 개시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동유럽과 중동의 더블 모멘텀

동유럽: NATO 동부 전선의 'K-방산 표준화'와 생산 허브 전략

폴란드: 단순 공급에서 '생산 거점'으로

폴란드는 한국 무기체계의 단순 수입국을 넘어, K-방산의 NATO 영내 진입을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이자 유럽 생산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6년 현재 폴란드와의 협력은 인도 위주의 'Gap Filler' 단계를 지나, 현지 합작 생산 및 MRO를 포괄하는 수명주기 파트너십 단계에 진입했다.

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WB' 합작법인을 통한 유럽 방산 블록화 정면 돌파

현지 합작법인 HWB를 통한 유도무기 생산 및 유럽 방산 블록화 대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심화된 현지화 전략을 전개하며 독보적인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설립된 합작법인 HWB(Hanwha-WB Advanced Systems)는 폴란드 '안보 자강'의 핵심 인프라로서 사거리 80km급 천무 유도탄(CGR-080)의 현지 생산을 전담하며, 이는 EU의 역내 제품 우선 구매 정책(EDIP 등)을 극복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지화 역량은 2025년 12월 체결된 5.6조 원 규모의 천무 3차 실행계약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며, 2025년 상반기 천무 126문의 조기 인도로 확보한 신뢰를 바탕으로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등 인접국으로의 유도무기 수출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② 현대로템: K2PL을 통한 유럽 전차 생산의 새로운 표준 정립

K2 전차 현지 조립과 압도적 납기 역량을 통한 유럽 전차 표준 선점

현대로템은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의 공급 지연과 노후화로 발생한 유럽 내 전력 공백을 K2 전차로 적기에 메우며 '전차 주권'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총 180대 규모의 2차 이행계약 중 63대를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와 현지 조립 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은 단순 수출을 넘어 전차 생산 인프라 및 기술을 폴란드에 이식하는 과정이며, 이는 향후 640대 규모의 3차 실행계약(K2PL 모델) 협상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하는 배경이 된다. 특히 유럽 경쟁사가 10대 미만 생산에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과 달리, 계약 후 2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는 '온타임 딜리버리(On-time Delivery)' 역량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고객사가 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한국항공우주(KAI): '유럽 MRO 허브' 구축과 플랫폼 락인(Lock-in) 가속화

항공 MRO 센터 기반의 장기 수익 플랫폼 구축 및 고객 락인 강화

한국항공우주(KAI)는 FA-50 수출을 기점으로 폴란드를 유럽 항공 정비 및 교육 센터로 육성하고 있다. 2024년 6월 폴란드 민스크 공군 기지에 설립된 후속 지원 체계(MRO)는 향후 30~40년간 안정적인 부품 공급 및 정비 매출을 보장하며, 이를 '국제 비행 훈련 학교'로 확장하여 동유럽 내 FA-50 및 KF-21 잠재 고객군을 선점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폴란드 공군의 성공적 운용 사례가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체 판매를 넘어 장기 수익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방산 산업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폴란드 시장에서의 성과는 단순 매출 증가를 넘어 폴란드군의 통신, 군수, 훈련 체계가 한국형 표준으로 통합되는 'K-표준화'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타 체계로의 변경을 어렵게 하는 전환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과 폴란드 양국 기술진의 협업 및 교육 과정은 단순 구매 관계를 넘어 전략적 안보 공동체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폴란드는 2026년에도 국내 방산 업종의 실적의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며, 특히 현지 합작법인 실적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2026년 하반기부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폴란드 수출 품목 현황

품목	기업	규모	수량	비고
K2 전차	현대로템	13.5조	총 1,000대 계획 (1차 180대 / 2차 180대)	1차 인도 중, 2차 현지생산 합의 및 3차 협상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7조	총 672문 계획 (1차 212문 / 2차 152문)	1·2차 인도 및 현지 MRO·공급망 구축 완료
천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6조	총 290문 규모 (3차 실행계약 포함)	3차 계약 체결 및 유도탄 현지 생산 착수
FA-50	한국항공우주(KAI)	4.2조	총 48대 (GF 12대 / PL 36대)	12대 인도 완료, MRO 가동 및 개량형 준비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루마니아: '폴란드 모델'의 복제와 동유럽 제2거점 확보 전략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이어 K-방산의 동유럽 내 제2핵심 전략 국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 등 실존적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5%에서 3% 이상으로 상향하며 신속한 재무장을 추진 중이다. 폴란드에서 검증된 한국 무기체계의 납기 신뢰성과 성능은 루마니아가 한국을 최우선 안보 파트너로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ACE Europe을 통한 지상화력 체계의 전방위 확산

H-ACE Europe 생산 공장 착공을 통한 유럽 내 K9·K10 핵심 공급 거점 구축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7월 루마니아 국방부와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운반차 36대 등을 포함한 1.38조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루마니아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루마니아 들판비차주 페트레슈티 지역에 착공한 약 18만 제곱미터 규모의 생산 공장(H-ACE Europe)은 단순한 조립 시설을 넘어 조립, 통합, 시험 및 MRO를 포괄하는 전 생애주기 지원 체계를 갖춘 예정이다. 한화는 해당 시설의 현지화율을 최대 80%까지 높여 루마니아를 유럽 내 K9 및 K10의 핵심 공급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현재 수주전이 진행 중인 246대 규모의 차세대 보병전투차량(IV) 사업에서도 레드백 장갑차의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② 현대로템 및 LIG넥스원: 전차 주권 확보와 방공망 현대화의 핵심 파트너

K2 전차 및 신궁 수출을 통한 기갑·방공 전력 현대화와 천궁-II로의 확장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의 노후 전차 교체 수요에 대응하여 약 216대 규모의 K2 전차 수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의 조기 인도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루마니아군의 전력 공백을 최단 기간에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LIG넥스원 역시 2024년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의 수출 계약(약 9,000만 달러)을 성사시키며 루마니아 방공망 현대화 사업의 첫 단추를 꿰었다. 이는 향후 중고도 방공망 체계인 천궁-II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략적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유럽 전역의 'K-방산 표준화'

루마니아를 거점으로 한 K-방산의 성공적 안착은 인접한 발칸반도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로의 영향력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NATO 북부 및 동부 전선 국가들이 이미 K9 자주포와 천무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상황에서,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대규모 거점화는 이들 접경 국가들 간의 군수 지원 및 통합 훈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 역시 폴란드의 FA-50 운용 사례와 루마니아의 지상군 현대화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동유럽 전역에 걸친 'K-방산 표준화'가 단순한 도입을 넘어 다국적 안보 협력 체계로 공고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루마니아 생산 공장은 향후 발틱 국가와 발칸 지역을 아우르는 동유럽 통합 군수 지원 및 정비의 핵심 기지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표 11. 루마니아 수출 품목 현황

품목	기업	규모	수량	비고
신궁	LIG넥스원	0.12조	총 54기	루마니아 최초 수출, 방공망 현대화 시작
K9 자주포 패키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8조	54문(K9), 36대(K10)	1.38조 규모 계약, 현지 공장(H-ACE) 착공
레드백 장갑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상중	총 246대	수주 협상 중, 현지화 80% 전략으로 우위
K2 전차	현대로템	협상중	총 216대	노후 전차 대체 수요, 연내 계약 성사 기대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표 12. 유럽 수출 기대 품목

품목	기업	대상 국가	비고
천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프랑스	M270 대체 후보, 가성비·성능 우위로 도입 권고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노후 훈련기 교체 협상, 폴란드 운용 신뢰 기반
KF-21	한국항공우주(KAI)	폴란드	공동개발(Block 2) 및 기체 도입 조건 논의 심화
FA-50	한국항공우주(KAI)	스페인	M109 교체 사업 참여, 최신 K9A2 모델 제안 중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중동: 실전 레퍼런스가 견인하는 자주 국방 수요

UAE: 실전 요격 성과 기반의 'K-방공' 표준화

UAE는 K-방산의 중동 진출을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2026년 2월 중동 분쟁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의 실전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한** 국가이다. 당시 UAE에 배치된 천궁-II(M-SAM II)는 이란의 포화 공격 환경 속에서 **96%의 명중률**을 기록하며 서방 체계를 상회하는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전 성과와 더불어 2026년 2월, 양국은 **35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방산 협력 사업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단순 무기 공급을 넘어 현지 공동 생산, 기술 이전, MRO 거점 구축을 포괄하는 최상위 안보 동맹으로 진화하였다.

① LIG넥스원: 유도무기 실전 신뢰성 확보와 장기 수익 플랫폼으로의 변모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L-SAM 도입 논의 가속화

UAE 천궁-II 수출의 주관사로서 유도탄 생산과 체계 종합을 담당하며 중동 시장 내 유도무기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6년 실전 요격 성공 데이터는 LIG넥스원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제로 UAE 측은 전량 소모된 유도탄의 신속한 보충을 위해 **자국 공군 수송기(C-17)를 한국으로 직접 파견하여 유도탄 30여 기를 조기에 수령하는 등 이례적인 긴급 조달 행보**를 보였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인근 도입국들의 조기 인도 경쟁을 촉발함과 동시에, **차세대 고고도 요격 체계인 L-SAM에 대한 신규 도입 논의**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다. 천궁의 유도탄 소모에 따른 즉각적인 탄약 보충 수요와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MRO 매출은 LIG넥스원의 수익 구조를 **일회성 수주에서 장기 플랫폼 매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② 한화시스템: 독보적 레이더 기술력 증명과 우주·위성 분야로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장

극한 환경 내 MFR 신뢰성 증명 및 우주·위성 분야 협력 확대

천궁-II의 '눈'에 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MFR)를 공급하며, 2026년 분쟁 당시 대규모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완벽히 탐지·추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성을 입증한 한화시스템의 레이더 기술은 UAE 측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는 방공망 시스템을 넘어 **우주 및 위성 통신 분야로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UAE와의 위성 공동 개발 및 기술 이전 논의는 한화시스템이 중동 내 **첨단 방산 IT 솔루션의 표준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③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대 현지 생산 거점화 및 지상 무기체계 전 계열 수출의 교두보

UAE 내 지상 무기 생산 거점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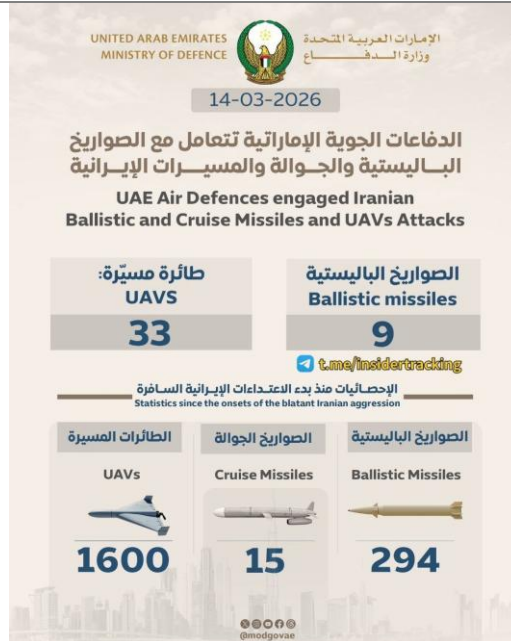
천궁-II의 발사대 및 차량 체계를 공급하며, **UAE 내 지상 무기 생산 거점 구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50억 달러 규모의 협력 사업을 통해 발사대 등 주요 구성품의 현지 생산과 MRO 역량 이전을 추진 중이며, 이는 UAE 정부의 '안보 자강'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천궁-II를 통해 구축된 신뢰도는 향후 **천무 다연장로켓과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지상 무기체계**가 UAE 시장에 추가 진입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표 13. UAE 수출 품목 현황

품목	기업	규모 및 수량	비고
천궁-II	LIG넥스원	전체 \$35억 규모	미사일과 통합 체계 공급
천궁-II 발사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궁-II 체계 포함	발사대 및 발사차량 공급, 지상 무기 생산 거점화 추진
다기능 레이더 (MFR)	한화시스템	천궁-II 체계 포함	극한 사막 환경 내 성능 입증, 우주·위성 협력 확장
천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000 억원	2021년 이후 인도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그림 8. UAE 국방부 발표 이란발 미사일·드론 공격 대응 통계 (2026.03.14 기준)



자료: UAE 국방부(MOD) 공식 X, KUVIC 리서치 3팀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과 연계한 전방위 화력 현대화 및 해상 전력 확보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체결된 32억 달러 규모의 천궁-II 계약을 기점으로, **지상·해상·항공 전 부문에 걸쳐 K-방산 플랫폼을 통한 대규모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 정부의 국가 전략인 '비전 2030'에 따라 **국방 예산의 5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지출하려는 방산 현지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파격적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을 제시하는 한국 기업들이 최우선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2026년 2월 중동 전면전 이후, 사우디는 자국 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보호를 위해 기존에 도입된 무기 체계의 조기 전력화와 추가적인 하이엔드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상 화력 패키지 수출과 현지 생산 거점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지상 화력 패키지(K9-천무-레드백)의 대규모 추가 도입 및 현지 생산 거점화

사우디 지상군의 화력 현대화를 위해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레드백 장갑차를 결합한 대형 패키지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 실전 운용 중인 천무의 성능에 만족한 사우디 군 당국과 **대규모 추가 도입 및 현지 생산 방식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는 사우디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2026년 중동 분쟁을 통해 확인된 대량 화력 투사 능력과 MRO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안하는 현지 생산 거점 구축 전략은 사우디 내 지상 무기 점유율을 독보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② 현대로템: K2ME 현지 시험평가와 '온타임 딜리버리'를 앞세운 기갑 전력 세대교체 주도

K2ME 현지 시험평가와 '온타임 딜리버리'를 앞세운 차세대 기갑 전력

사우디 육군의 노후화된 기갑 전력 교체를 위해 **중동 특화형 모델인 K2ME(K2 Middle East)**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예정된 현지 시험 평가는 수주 확정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독일 등 서방 제조사들이 겪고 있는 납기 지연 리스크를 틈타 **한국 특유의 '온타임 딜리버리'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폴란드에서의 대규모 양산 및 인도 레퍼런스는 사우디 정부가 현대로템을 신뢰할 수 있는 차세대 전차 공급원으로 낙점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잠수함 및 신형 호위함 수주를 통한 해상 전력 포트폴리오 다변화

③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잠수함 및 신형 호위함 수주를 통한 해상 전력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사우디 해군이 추진 중인 최초의 잠수함 도입 사업과 4,000톤급 신형 호위함(4~5척) 건조 사업에 참여하며 K-방산의 수주 영역을 해상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상 무기와 방공망에 집중되었던 기존 수주 포트폴리오를 특수선 분야로 넓힘으로써, 사우디 내에서 한국 방산의 위상을 전방위적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모멘텀을 형성하였다. 사우디의 해상 주권 확보 의지와 한국 조선업의 압도적인 설계·건조 능력이 결합된 해상 전력 패키지는 향후 중동 지역 내 해군 현대화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4.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품목 현황

품목	기업	규모 및 수량	비고
천궁-II	LIG넥스원	전체 \$32억 규모	미사일과 통합 체계 공급
천궁-II 발사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궁-II 체계 포함	발사대 및 발사차량 공급
다기능 레이더 (MFR)	한화시스템	천궁-II 체계 포함	극한 사막 환경 내 성능 입증
천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 조원	2023년 이후 인도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이라크: 기갑 전력의 세대교체와 K-방산의 신규 요충지

이라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기존 러시아산 주력 장비(T-90S, T-72 등)의 후속 군수지원 및 성능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한국산 무기체계를 통한 전력 현대화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2025년 대규모 방공망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상 기갑 전력과 항공 플랫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중동 내에서 한국형 무기체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안보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① 현대로템: K2 전차 중심의 기갑 전력 세대교체와 지상군 표준 선정

약 8.6조 원 규모의 K2 전차 250대 수출 및 현지 정비 인프라 구축 협상

러시아산 노후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약 65억 달러(한화 약 8.6조 원) 규모의 K2 전차 250대 수출 계약을 이라크 정부와 긴밀히 논의 중이다. 이라크 군 당국은 폴란드 사례를 통해 증명된 한국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조기 인도 역량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으며, 자국 내 정비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기술 이전 조건에 대해 현대로템과 긍정적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현대로템이 중동 지역에서 K2 전차의 대규모 공급망을 확보하고 지상군 표준을 선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LIG넥스원·한화그룹: '사막형 천궁-II'를 통한 중동 방공 벨트 완성 및 장기 MRO 수익 기반 확보

사막형 천궁-II 도입을 통한 중동 방공 벨트 완성

2025년 약 26억 달러(한화 약 3.5조 원) 규모의 천궁-II(M-SAM II)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UAE, 사우디에 이어 중동 내 세 번째 방공망 고객국이 되었다. 이라크에 공급되는 모델은 고온과 모래폭풍 등 현지 사막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냉방 성능과 방진 설계를 대폭 강화한 '사막형 특화 모델'로서, 한국 유도무기 체계의 현지 맞춤형 설계 능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를 통해 LIG넥스원은 중동 지역을 잇는 거대 방공 벨트를 완성하였으며, 향후 요격 미사일 재보급 및 MRO를 통한 장기적 수익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였다.

③ 한국항공우주(KAI): T-50IQ 신뢰 기반의 수리온·KF-21 항공 플랫폼 수출 외연 확대

T-50IQ 운용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항공 플랫폼 수출 외연 확대

이미 운용 중인 T-50IQ(FA-50의 이라크 수출형)의 후속 군수지원 및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라크 공군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 수리온(KUH-1)의 첫 수출 계약을 공식 성사시키며 국산 헬기의 중동 시장 진출 물꼬를 텃으며, 이를 발판 삼아 이라크 육군 항공대의 대규모 노후 헬기 교체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향후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잠재적 수요처로서 이라크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ITAR 규제 탈피와
현지 공동 생산
전략

중동 주요 3개국에서 확보한 실전 데이터와 운용 경험은 이집트의 지상 화력 현대화 및 MENA 지역 생산 거점화, 카타르의 에너지 인프라 보호를 위한 기갑·타격 자산 도입, 오만의 항공 전력 교체 등 주변국으로의 수출 확장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ITAR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급 자율성과 현지 국가들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 조건을 적극 수용하는 전략**은 기존 서방 중심의 공급망을 한국형 체계로 대체하는 핵심 근거이다. 이는 단순한 장비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 공장 건설과 MRO 역량 내재화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입 후 30~40년간 지속되는 부품 공급 및 탄약 재보급 수요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중동 전역에 구축되는 한국형 방위 플랫폼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기 시 즉각적인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적 수익원을 제공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방산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고 플랫폼 종속 효과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표 15. 이라크 수출 품목 현황

품목	기업	규모 및 수량	비고
천궁-II	LIG넥스원	전체 \$26억 규모	미사일과 통합 체계 공급
천궁-II 발사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궁-II 체계 포함	발사대 및 발사차량 공급
다가능 레이더 (MFR)	한화시스템	천궁-II 체계 포함	극한 사막 환경 내 성능 입증
TA-50	한국항공우주(KAI)	총 24대	13년 약 11억달러 규모 계약
수리온	한국항공우주(KAI)	총 2대	24년 약 1억달러 규모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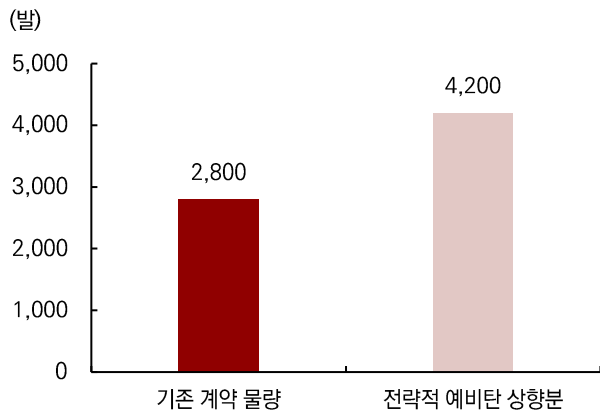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표 16. 중동 수출 기대 품목

품목	기업	대상 국가	비고
L-SAM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중동의 방공망 체계에 대한 관심 증가
K9 자주포 / 레드백 / 천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사우디와 지상 무기 체계 공급 계약 논의, 이라크 군 대표단 한국 방문
K2 전차	현대로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와 250대 규모 전차 도입 논의 중, 26년 K2ME 시험 평가 이후 수출 확대 기대
KF-21	한국항공우주(KAI)	사우디아라비아, UAE	KF-21 국내 양산 시작, 중동 지역에서 KF-21 도입 관심
수리온	한국항공우주(KAI)	이라크, UAE	중동 지역에서 수리온 수출 추진 중
수상함 / 잠수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차기 호위함 및 잠수함 도입 사업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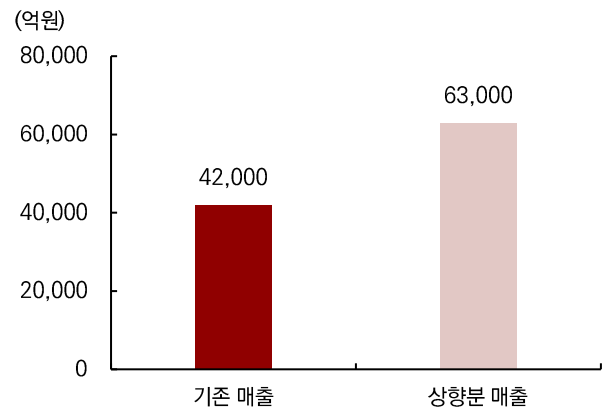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그림 9. 중동 3국(사우디, UAE, 이라크) 천궁-II 유도탄 수량추정



자료: KUVIC 리서치 3팀

그림 10. 중동 3국(사우디, UAE, 이라크) 천궁-II 유도탄 매출추정



자료: KUVIC 리서치 3팀

미래 기술 트렌드: AI, 무인화, 그리고 우주

현대 전쟁은 더 이상 단일 무기체계의 성능 경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투기, 전차, 함정, 미사일 등 개별 플랫폼의 기동 성능, 화력, 탐지 거리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 지표가 군사력의 핵심 척도로 기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센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자율 알고리즘, 우주 기반 감시체계가 하나의 작전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전장의 우위는 특정 플랫폼 한 대의 성능보다 얼마나 많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그 연결을 통해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전쟁의 본질이 바뀌었다기보다,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보다 정교한 네트워크 구조 위에서 재설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 수집 자산은 폭증하고 있고, 전장 상황은 실시간으로 변하며, 대응 속도는 짧아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개별 플랫폼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전투력의 핵심은 플랫폼의 절대 성능이 아니라 플랫폼 간 연결성, 데이터 융합 능력,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지휘통제 역량으로 재정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군사기술의 진화 방향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방대한 전장 정보를 정리·분석하고 지휘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AI 기반 전장 운영체계**다. 둘째는 유인 플랫폼과 무인 플랫폼이 역할을 분담하며 하나의 작전 단위처럼 움직이는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 즉 **무인화**다. 셋째는 조기경보, 감시, 통신 연결성을 제공하는 **우주 기반 감시 및 전송 인프라**다. 중요한 점은 이 세 축이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맞물리면서 전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데 있다.

유무인 협동전투체계(MUM-T)의 부상

MUM-T의 정의: 플랫폼의 개별 운용에서 네트워크형 전투 구조로

유인 플랫폼과 무인 플랫폼이 하나의 전투 단위로 결합

MUM-T(Manned-Unmanned Teaming)는 유인 플랫폼과 다수의 무인 플랫폼이 하나의 전투 단위로 결합해 임무를 수행하는 운용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유인 장비와 무인 장비를 같은 전장에 동시에 투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 플랫폼이 상호 연동된 상태에서 임무를 분담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전투팀처럼 작동하는 구조를 뜻한다.

기존 전장에서는 전투기, 공격헬기, 전차 등 유인 플랫폼이 정찰, 표적 탐지, 교전, 전자전 대응 등 복수의 임무를 사실상 단독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작전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한계가 명확해진다. 조종사 또는 승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늘어나고, 고위험 지역에 유인 플랫폼이 직접 진입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유인 플랫폼이 모든 임무를 전 면에서 수행하기보다, 전장 관리와 결심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무인 플랫폼이 위험도가 높은 세부 임무를 분담하는 구조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인 플랫폼 역할의 진화

일반적으로 유인 플랫폼은 작전의 중심 노드로서 지휘·통제를 담당한다. 반면 무인 플랫폼은 정찰, 표적 탐지, 전자전, 기만, 선형 침투, 타격 보조와 같은 고위험 또는 반복적 임무를 맡는다. 이 과정에서 유인 플랫폼은 단순히 화력을 발휘하는 무기체계를 넘어, 다수의 무인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전투 네트워크의 지휘 플랫폼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MUM-T는 무인기가 늘어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유인 플랫폼의 역할이 '직접 수행자'에서 '통합 관리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개념은 완전 자율 무기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로도 볼 수 있으나, 단순한 과도기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기술적·윤리적·제도적 측면에서 완전 자율 무기체계의 도입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반면 MUM-T는 인간이 최종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무인체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 기간 현실적인 주류 운용 개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즉 MUM-T는 미래 전장의 임시 해법이 아니라,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작전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구조적 해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MUM-T의 핵심 기술: 상호운용성, 자율성, 인간-기계 협업의 결합

MUM-T의 기술적 기반

MUM -T 체계가 실제 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인 플랫폼과 무인 플랫폼을 함께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각 플랫폼이 하나의 전투 구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협력하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미 국방부는 관련 기술을 대체로 **상호운용성, 자율성, 안전한 네트워크, 인간-기계 협업의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하고 있다.

상호운용성을 통한 Seamless한 전투체계의 구현

먼저 **상호운용성**은 MUM-T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유인 플랫폼과 무인 플랫폼이 서로 다른 제조사, 다른 규격, 다른 통신 체계를 기반으로 개발되더라도, 실제 작전 상황에서는 동일한 작전 그림을 공유하고 동일한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링크 체계의 표준화, 통신 프로토콜의 일치, 임무 지휘체계 간 호환성이 필수적**이다. 상호운용성이 부족할 경우 플랫폼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따로 움직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MUM-T의 실질적 구현 여부는 플랫폼 성능보다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인플랫폼의 전술적 자율성

자율성 역시 핵심 요소다. 다수의 무인 플랫폼을 인간이 일일이 직접 조종하는 방식은 작전 규모가 커질수록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무인 플랫폼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비행 능력과 상황 인식 능력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AI 기반 자율항법, 군집 비행 기술, 충돌 회피 알고리즘, 임무 재배치 기능**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러 대의 무인기가 동시에 투입되는 환경에서는 개별 기체가 서로의 위치와 임무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역할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자율성은 단순한 '자동조종' 수준이 아니라, 전장 맥락 속에서 임무를 지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술적 자율성으로 진화하는 방향이 중요해지고 있다.

재밍과 해킹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네트워크

안전한 네트워크는 MUM-T의 생명선에 해당한다. 유인 플랫폼과 무인 플랫폼 간에 오가는 정보는 정찰 영상, 위치 정보, 표적 좌표, 임무 지시 등 작전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이 끊기거나 교란되면 체계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빠른 통신이 아니라, **재밍과 해킹에 견딜 수 있는 고신뢰·고보안 통신망**이 요구된다. 특히 미래 전장에서는 전자전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네트워크의 복원력과 분산성, 지연 최소화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한 인간-기계 협업

인간-기계 협업 기술도 필수적이다. 조종사 또는 운용자가 다수의 무인 플랫폼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단순한 원격 조작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임무 우선순위 추천 기능, 자동 표적 분류 기능** 등이 필요해진다. 핵심은 인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 능력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기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먼저 전장 데이터를 정리하고 작전 대안을 제시하면, 인간은 그중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는 인지 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다수 자산을 하나의 팀처럼 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외에도 자동 표적 식별, 실시간 영상 분석, 센서 융합, 위치 추적 정확도 향상, 지연 없는 데이터 전송 기술 등이 MUM-T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로 꼽힌다. 종합하면 **MUM-T의 핵심은 특정 플랫폼의 단일 기술 우위가 아니라, 연결성·자율성·보안성·지휘지원 기술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 역량**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1. MUM-T 운용 개념



자료: LIG넥스원, KUVIC 리서치 3팀

MUM-T의 전략적 장점: 생존성, 효율성, 지속성의 동시 개선

MUM-T가 미래 전장 구조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일한 장점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 체계는 전투 효율성, 생존성, 작전 지속성, 인력 운용 효율 등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개선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

MUM-T의 장점:
인명 피해 최소화

우선 가장 직관적인 장점은 **유인 전력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무인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소모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적 방공망이 밀집된 고위험 지역이나 선행 정찰이 필요한 지역에 먼저 투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론이 먼저 적 영공에 진입해 대공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기지, 전자전 자산의 위치를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유인 플랫폼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유인 플랫폼은 **적 위협이 상대적으로 정리된 이후 보다 안전한 거리에서 전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직접적인 피해 위험도 낮아진다.** 이는 전투기 조종사 등 고속련 인력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MUM-T의 장점:
작전의 효율성 및 전투의 지속가능성 제고

둘째, 작전의 **효율성 및 전투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인 플랫폼이 모든 임무를 수행하려면 높은 기체 운용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병력의 피로 누적과 판단 저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MUM-T 환경에서는 정찰, 감시, 교란, 기만, 초기 타격 유도**와 같은 일부 임무를 무인 플랫폼이 분담함으로써 유인 플랫폼은 보다 핵심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가 플랫폼의 운용 부담을 낮추고, 전체 작전의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여 장시간 작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MUM-T의 활용 사례

최근 주요 방산 기업과 군 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MUM-T는 더 이상 개념 검토 차원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다. 실제 플랫폼 개발과 전력 구조 설계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KF-21을 통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26년 드론쇼 코리아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기반의 미래 전장 솔루션을 제시했다. 공개된 구상에서는 **KF-21, FA-50과 같은 유인 전투기가 소형 무인항공기(SUCA)와 연동되어 공중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포함됐다. 이 체계에서는 협동 무인기가 위험 지역에 먼저 투입돼 정찰, 표적 탐지, 위협 식별을 수행하고, 유인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리에서 상황을

통합하며 전체 임무를 조율하는 형태가 강조됐다. 또한 소형무장헬기(LAH)와 수직이착륙 무인기를 결합한 유무인 협동 운용 개념 역시 함께 제시됐다. 이는 MUM-T가 공중전투기 영역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회전익 플랫폼과 전술 무인기까지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전장 구조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향후 MUM-T는 특정 기종의 기능 추가가 아니라, 플랫폼 간 조합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2. AI 기반 차세대공중전투체계 개념도



자료: KAI, KUVIC 리서치 3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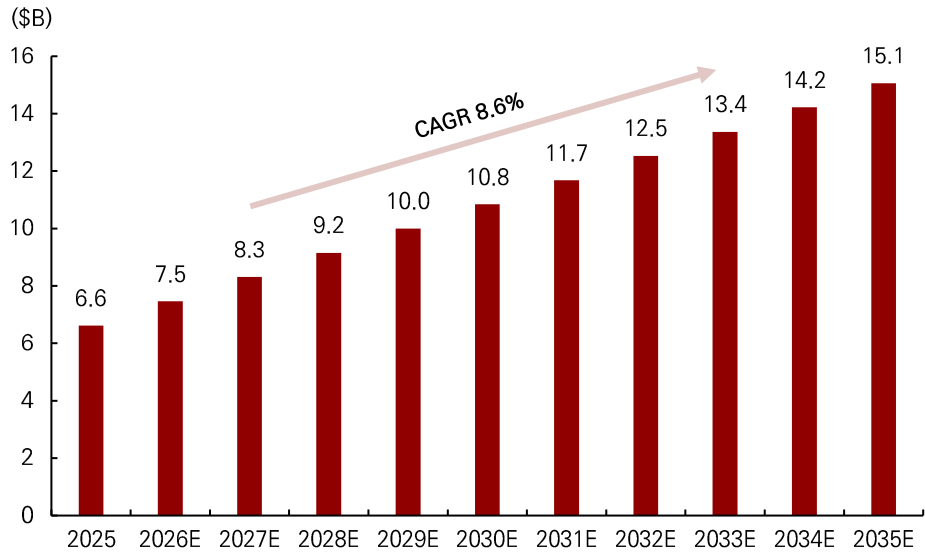
MUM-T의 확산과 미래 전장 구조: 성능 경쟁에서 체계 경쟁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는 유무인 협동작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예컨대 KF-21의 경우 단순히 자체 비행 성능과 탑재 능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복수의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공중 지휘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투기는 직접 교전을 수행하는 플랫폼인 동시에, 다수의 무인 편대를 연결하고 지휘하는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전투기의 개념이 '고성능 플랫폼'에서 '공중 네트워크 노드'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복좌형 플랫폼의 가치도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전방 좌석이 비행과 교전에 집중하는 동안, 후방 좌석이 무인 편대 운용, 데이터 링크 관리, 전자전 대응, 표적 할당 등을 담당하는 형태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전장의 복잡성을 감당할 수 있는 작전 구조를 플랫폼 내부에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미래 전장에서의 진정한 경쟁력은 유무인 전력을 얼마나 정교하게 통합하고, 이를 통해 얼마나 빠른 작전 템포를 구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MUM-T는 완전 자율 무기체계로 가기 전 단계가 아닌,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미래 전장의 핵심 구조라고 판단한다.

그림 13. 글로벌 MUM-T 시장 규모 전망



자료: A&D Market Reports, KUVIC 리서치 3팀

드론 전쟁을 통해 본 새로운 전쟁 경제학

2026 중동 전쟁의 양상: 대량·저가·소모전의 구조

두드러지는 소모전의 양상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은 드론이 현대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해당 충돌에서는 **저가 드론이 대량으로 투입되어 상대 방공망의 탐지·추적·요격 체계를 소모시키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전통적인 전투기 중심 공중전과는 다른 결을 가진다.

과거 공중전은 고성능 전투기와 정밀유도무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낮은 가격과 대량 생산 능력을 앞세운 무인 플랫폼이 전장의 리듬 자체를 바꾸고 있다. 드론은 정교한 성능보다도 수량과 지속성을 통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으며, 상대의 방어 구조를 소모시키는 전술적 소모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드론과 요격 미사일의 비용 비대칭: 전쟁의 승부처가 된 단가 구조

이란의 저가 Shahed vs, 미국의 고가 Patriot

드론이 전장에서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방어 수단과의 뚜렷한 비용 비대칭에 있다. 예를 들어 **이란의 Shahed-136과 같은 자폭형 드론은 낮은 단가로 운용 가능한 반면, 이를 요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Patriot PAC-3 계열 요격 미사일은 훨씬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즉 공격 측은 상대적으로 값싼 수단을 대량 투입할 수 있는 반면, 방어 측은 훨씬 비싼 자산으로 이를 막아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구조는 단발성 교전에서는 감내 가능할 수 있지만, **드론이 대량으로 지속 투입될 경우 방어 측에 큰 부담을 준다.** 이 때문에 최근 방공 체계는 단순히 더 많은 요격미사일을 확보하는 방향이 아니라, **드론 위협에 걸맞은 저비용 대응 수단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요격 드론, 고에너지 레이저, 전자전 장비, 재밍 체계 등이 부상하는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위협을 같은 방식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위협의 속도·가격·규모에 따라 대응 단가를 달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 전쟁에서는 무기 성능만큼이나 비용 대비 효과와 전력 소모의 균형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그림 14. 이란의 자폭 드론 'Shahed'

그림 15.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Patriot'



자료: 언론 보도, KUVIC 리서치 3팀

자료: 록히드마틴, KUVIC 리서치 3팀

방공망의 진화: 하늘을 넘어 우주로

최근 방공 체계는 단순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넘어, 다양한 감시·추적·요격 수단이 결합된 다층 네트워크 구조로 발전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면서 기존 방공망의 한계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우주 기반 방공망과 저궤도 위성: 상층 감시 레이어의 부상

기존 지상 레이더의 한계

현대 방공망의 가장 큰 변화들 중 하나는 우주 기반 감시 체계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지상 레이더는 지구 곡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탐지 거리와 감시 범위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저고도 표적이나 조기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다.

저궤도 위성을 통한 우주 기반 방공망

반면 저궤도 위성 기반 센서 네트워크는 훨씬 넓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특히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열 신호를 포착하는 데 유리해 조기경보 시간을 늘리고, 후속 추적 및 요격 체계에 보다 빠르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저궤도 위성은 지상 감시체계의 사각과 한계를 보완하는 상층 감시 레이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구조 아래에서 현대 방공망은 우주 기반 감시, 지상 레이더, 요격 미사일, 전자전, 레이저 무기 등이 서로 연결된 다층 방어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으며, 우주는 더 이상 '부가적인 감시 영역'이 아니라, 방공망의 출발점이자 연결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결론

전쟁의 경제학 그리고 K-방산의 구조적 도약

글로벌 질서가 **신냉전 체제로 완전히 굳어지며** 각국의 안보 자강은 이제 국가 생존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과거 수십 년간 글로벌 방산 시장은 소수의 정밀 무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하이엔드 무기 체계와 기술력 과시에 집중한 고비용 구조를 지향해 왔으나, 최근의 실전 사례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러-우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목도한 현대전의 실상은 기술적 우위 그 자체보다, **효율적인 비용 교환비를 바탕으로 소모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임을 증명한다. 특히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첨단 요격 미사일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저렴한 자폭 드론에 의해 무력화되거나 소모되는 비용 비대칭 문제는 국가 재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기는 동시에, 군의 전체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요소로 부상했다. 이는 성능의 극한만을 추구하며 대량 양산성과 경제성을 간과했던 서구권 무기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화두는 적의 고가 자산을 저비용으로 타격하거나 공격을 가장 효율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성비 확보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미래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우주 위성 정보와 AI 무인화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의 기본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이를 **현실적인 가성비로 구현해낼 수 있는 압도적인 제조 및 양산 역량이 결합**되는 데서 창출된다. 첨단 기술의 확보는 이미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공통의 목표가 되었으나, 진정한 국방 경쟁력은 이러한 기술력을 **신뢰성 있는 하드웨어에 신속히 이식하여 전장에 즉각 투입 가능한 규모로, 그리고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대량 공급하는 인프라, 그리고 이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MRO 역량**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간의 특수한 안보 환경과 대치 상황 속에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비용 효율을 이유로 축소하거나 포기했던 **대규모 생산 라인과 적기 공급 능력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국가**다. 여기에 수출 이후의 안정적인 탄약 보충과 정비 지원을 포괄하는 MRO 서비스 경쟁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고객사의 전쟁 지속 능력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결국 미래 방산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쇼케이스를 넘어 한 국가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조 효율성과 가성비 중심의 정비 역량 싸움이 될 것이며, **기술적 신뢰도와 생애주기 전반의 효율성을 모두 확보한 K-방산**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으며 독보적인 성장 가도에 본격적으로 올라섰다.

미래 전장의 승부처는 ‘연결성’

미래 전장 기술의 핵심 흐름은 AI, 무인화, 우주 기술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형 전투 구조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AI는 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작전 판단을 지원하는 ‘지능 계층’**으로 기능하며, 무인체계는 **위험 임무를 분산 수행하고 전력의 대량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 계층’**을 담당한다. 여기에 우주 기반 감시체계는 광범위한 탐지 범위와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며 **전체 전투 구조를 연결하는 ‘상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세 요소가 결합되면서 전장의 경쟁 구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투기, 전차, 함정 등 개별 플랫폼의 성능이 군사력의 핵심 척도로 인식됐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빠르게 탐지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력을 분산 운용하며, 얼마나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가가 전장의 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미래 전쟁은 단순한 무기 성능 경쟁이 아니라 센서·플랫폼·네트워크가 결합된 체계 경쟁(system competition)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 방산 경쟁의 본질은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에만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누가 더 많은 센서와 플랫폼, 통신망과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전투체계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는 향후 방산 시장의 경쟁 구도가 전통적인 플랫폼 중심 구조에서 체계 중심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방산 밸류체인 역시 하드웨어 제조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Not
Rated

LIG넥스원 (079550)

한 번 쏘면 끝? 아니 아니 아니되오!

'면도기-면도날' 모델의 본격화

LIG넥스원은 국내 방산 특유의 원가보상제도에 묶여 적정 이윤이 제한되던 과거의 수익 구조에서 탈피하여, 가격 결정권이 확보된 **고마진의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며 재평가 구간에 진입했다. 특히 무기 체계의 도입 이후 20~30년간 이어지는 **'면도기-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 MRO 및 소모성 부품 공급을 통한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부각되는 요소는 **천공-II의 유도탄 비축 수요**다. 중동 3국의 천공-II 유도탄 관련 기존 계약 매출은 약 4조 2,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나,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정세와 실전 대응을 위한 전략적 예비탄 비축 수요를 고려하면 해당 매출은 **약 6조 3,000억 원 수준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제조 원가 제한이 없는 **해외 수출용 유도탄은 GPM(매출총이익률)이 40%에 육박하는 초고수익 품목**이며, 오직 중동향 유도탄 단일 품목의 매출에서만 인도 기간 내 **총 1조 5,750억 원(영업이익률 25% 가정)에 달하는 누적 영업이익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기존 추정치 대비 5,250억 원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소모품 및 MRO 매출 본격화는 과거 내수 중심 구조와 달리 전사 수익성을 가파르게 개선하는 질적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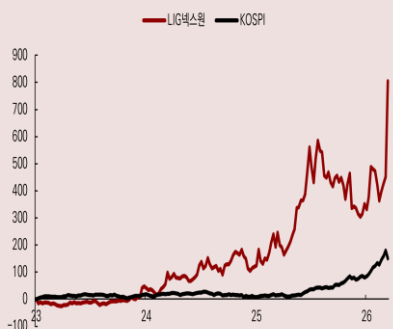
LIG D&A 도약과 첨단 기술 선점

창립 50주년을 기점으로 단행한 사명 변경은 우주, 항공, 전자전 등 **전 영역 (Multi-domain)을 아우르는 글로벌 첨단 기술 기업**으로의 정체성 변화를 상징한다. 이는 정밀 유도무기를 넘어 육·해·공·우주를 통합하는 넥스원만의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반영한 전략적 행보다. 특히 기존 SAR 중심이었던 우주 역량은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체제 아래 위성 통신 및 요격 체계로 확장되며 현대전의 핵심인 우주 주권 선점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1.6조 원 규모의 전자전 체계 개발과 AI 기반 지휘통제 시스템, 그리고 **고스트로보틱스의 플랫폼을 결합한 유무인 복합체계(MUM-T) 솔루션**은 글로벌 시장 내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제공한다. 이러한 진보는 단순 방산 제조사를 넘어 **하이테크 소프트웨어를 가진 글로벌 종합 방산 기업**으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Stock Information

시가총액	15조 9,060억원
발행 주식 수	2,200만주
유동주식비율	60.87%
52주 최고가	834,000원
52주 최저가	239,000원
외국인 지분율	24.71%
KOSPI	5,487.24
KOSDAQ	1,152.96

Price Trend



KUVIC Research Team 3

메일 kuvic_korea@naver.com

팀장 44기 Senior 김병찬
 팀원 44기 Senior 김단비
 팀원 44기 Senior 정다연

Who We Are



Earnings and valuation metrics

계산기 (12월)	2021	2022	2023	2024	2025P
매출액 (십억원)	1,822	2,221	2,309	3,276	4,307
YoY (%)	13.9	21.9	4.0	41.9	31.5
영업이익 (십억원)	97	179	186	230	323
YoY (%)	52.6	84.3	4.1	23.3	40.5
영업이익률 (%)	5.3	8.1	8.1	7.0	7.5
당기순이익 (십억원)	105	123	175	222	255
EPS (원)	4,755	5,588	7,954	10,078	11,600
P/E (배)	14.4	16.5	16.4	21.9	39.7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당기순이익

자료: KUVIC Research 3팀

Compliance Notice

- 본 보고서는 고려대학교 가치투자동아리 KUVIC의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들은 고려대학교 가치투자동아리 KUVIC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권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고려대학교 가치투자동아리 KUVIC의 스터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고려대학교 가치투자동아리 KUVIC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